

보도시점 2025. 5. 8.(목) 12:00 (금요일 조간) 배포 2025. 5. 8.(목)

캄보디아 물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 캄보디아 주요 부처와 우리 물기업들 간 1:1 협력 체계 구축
- 훈 마넷 총리, 산업화·도시화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경험을 공유 요청
- 메콩-센강 연결수로 사업, 씨엠립 등 주요도시 상수도 확충, 스마트 물관리 체계 확대 등 양국 물관리 협력 사업 본격 추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김완섭 장관을 단장으로 한 ‘물산업 협력 사절단’*을 파견하여 캄보디아와 물관리 협력사업을 새로이 발굴하고 우리 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을 위한 정부-정부(G2G), 정부-민간(G2B)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에 프랑스, 일본 등이 중심이었던 캄보디아 물관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본격 진출하는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

* 환경부, 우리나라 물기업(18개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물산업협의회 등으로 구성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훈 마넷 총리와 양국이 협력하여 홍수대응 및 농업용수 확보, 톤레삽 호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메콩-센강 연결수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깨끗한 물수요에 대응하여 정수장, 저수지 등 물관리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 장관은 수자원기상부, 산업과학기술혁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를 구체화하여 씨엠립(캄보디아 앙코르 와트 소재지) 등 성장하는 도시에서의 정수장 확충, 누수 최소화 등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 체계 확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 소수력 발전 및 매립지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을 함께 추진기로 했다.

또한, 이러한 협력사업에 우리나라 물기업들이 적극 진출하도록 ‘한국-캄보디아 물산업 협력 포럼’, 1:1 기술상담회, 현장 기술세미나 등을 개최했다. 우리 기업들은 현지 물관리 사업계획과 시장의 수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캄보디아 정부부처, 지자체, 현지 기업들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상품을 직접 확인하면서 양측간 실질적 협력체계를 깊고 넓게 확대했다. 이번 사절단의 구체적 성과는 아래와 같다.

우선, 김완섭 장관은 캄보디아 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 최고위급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보하고, 구체적 물관리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키로 했다.

김 장관은 캄보디아 정부 수반인 훈 마넷 총리를 만나 물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절단 파견 목적과 스마트 물관리,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등 주요 물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양국 간 기후위기 대응 및 물관리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훈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가 겪고 있는 빠른 도시화, 산업화를 이미 경험한 우리나라와 협력하면 몇 단계 더 빠르게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캄보디아의 저수지, 정수장 확충에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첫 번째 안건으로 기후위기로 심해지는 홍수 피해 예방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메콩-센 강 연결 수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와의 협업을 적극 요청했다.

뒤이어 김 장관은 수자원관리정책 전반을 관할하는 타오 체타 수자원기상부 장관과 물관리 협력 양해각서(MOU)를 5월 6일 체결하여 △기후 대응력 강화를 위한 통합물관리 사업, △홍수·가뭄 조기경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효율적인 물관리, △수질오염 관리 및 지속가능한 유역관리, △물 인프라 계획을 위한 기술·제도 협력 등 물관리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상수도 관리를 담당하는 캄보디아 햄 반디 산업과학기술혁신부 장관을 만나 현재 수도 프놈펜 일부 구역에서 구축 중인 스마트 상수도 사업을 프놈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신규 사업으로 씨엠립과 같이 성장해 나가지만 아직 상수도 시설이 부족한 도시에 정수장 확충 사업을 함께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응 소펠라엣 캄보디아 환경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는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논의하고, 소수력 발전 및 매립지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파리협정 6.2에 근거)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또한, 김 장관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엔개발계획(UNDP),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지역사무소장들과의 다자면담에서 향후 캄보디아내 개발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캄보디아 발전을 위하여 상하수도 사업, 메콩-센강 연결수로 사업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소개하며, 국제기구 사업과 연계를 논의했다.

한편, 이번 사절단의 목적이 기존 정부 대 정부 협력(G2G)을 기반으로 캄보디아 정부 대 우리 기업들간의(G2B) 협력 확대에 있다는 점에서, 환경부는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와 공동으로 ‘한국-캄보디아 물산업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산업과학기술혁신부, 공공사업교통부, 재정경제부, 광물에너지부, 프놈펜 시청 및 상수도청, 상수도협회 등과 21개 현지 기업들,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등 캄보디아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국제기구들이 참석하여 각 기관별 캄보디아 물관리 사업을 설명했다.

우리 18개 기업들도 기업별 주력 기술과 상품을 발표(18개 중 12개)하고, 포럼장 내에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특히, 포럼은 공식 프로젝트 발표 외에 우리 기업들과 캄보디아측 관계자들간의 1:1 기술상담회로 이어져 참여기업들은 물시장의 주요 발주처인 정부부처 담당자를 직접 만나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스마트 관망관리 기술, 하수도 분야 선진기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65건, 14.6백만달러(약 200억원)의 수출상담도 이루어졌다. 한 기업은 1:1 기술상담회에서 캄보디아 재정경제부 물관리 개발협력사업 담당자를 직접 만나 명확한 사업추진계획과 일정을 공유하여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큰 성과라고 말했고, 또 다른 기업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건설 예정인 하수처리장 기업과 제품 입찰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포럼에 이어 우리 물기업들과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기관, 코트라 현지 무역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물산업협의회 등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지 상황과 사업 기회, 위험요인, 금융지원 등에 대하여 논의하여 캄보디아 현지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추가적인 궁금증을 해소했다.

사절단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현지 바깥 정수장(프놈펜 소재)에 방문하여 운영실태 및 기술 수요를 현장 전문가 관점에서 파악하고, 프놈펜 상수도 공급을 총괄하는 프놈펜 상수도청을 방문하여 프놈펜 상수도청장 및 담당자들에게 우리기업 10곳에서 기술과 상품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5월 7일 개최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급격히 커가는 캄보디아 물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캄보디아 정부와 우리 기업들간 교류체계를 더욱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사업들을 조속히 발전시켜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물산업 협력 사절단 활동사진.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범직 (044-201-7631)
		담당자	사무관	박상현 (044-201-7633)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 등 대표단과 우리나라 대표단 간 기념사진 (5.5)



□ 포럼 시작전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타오 체타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장관(5.6)



□ 한국 캄보디아 물산업 협력 포럼에서 개회사하는 김 장관(5.6)



□ 환경부와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간의 MOU 체결(5.6)



□ 포럼 중 메콩-센강 연결 수로 사업을 논의 중인 김 장관과 타오 체타 장관(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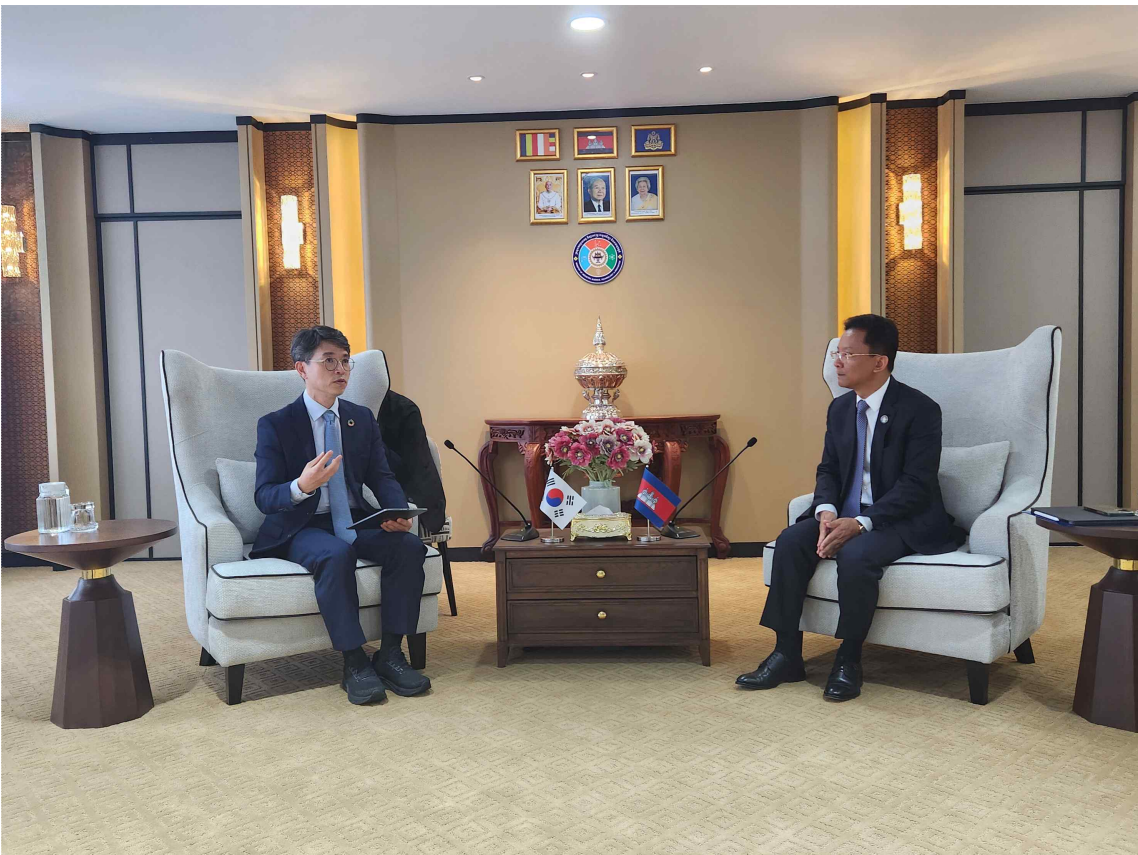
□ 우리기업 부스 라인투어 중인 김 장관 및 타오 체타 장관(5.6)



□ 국제기구 지역사무소장(WB, ADB, UNDP, GGGI)과 면담(5.6)



□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상수도 담당)와 양자면담 중인 김 장관(5.7)



□ 캄보디아 환경부 장관과 양자면담 후 선물교환(5.7)



□ 캄보디아 현지 바깥정수장 방문 중인 우리기업들(5.7)



□ 캄보디아 현지 바깥정수장 방문 중인 우리기업들(5.7)



□ 캄보디아 프놈펜상수도청에서 세미나 중인 우리기업들(5.7)

